

정밀화학사업단, 고기능 포장재 개발 착수

울산시 투자기관인 울산 산업진흥 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과 자동차 물류기업 한국메탈은 6월13일 자동차부품 등의 운반에 필요한 <고기능성 에어캡(Air Cap) 포장재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밀화학사업단과 한국메탈은 비닐 안에 공기를 넣어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기존의 에어캡 포장재가 빛이나 악천후에 견디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말까지 1억9000만원을 투입해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체가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연구가 성공하면 기존 에어캡 포장재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저널 2007/06/14>